

Juhun Lee

Professor Hyejin Kim

Translation Practicum

03 April 2024

### 탐광하기 좋은 날 | 기후불안을 파서 금을 캐는 방법

40억년 전, 우리 사는 지구는 사건과 소동이 난무하는 격동의 도가니였다. 지구 한가운데서는 뜨겁게 녹아내린 금속 핵이 뒤섞였고, 핵에서 내뿜는 열기는 지표면의 강과 호수를 녹였다. 땅을 뒤흔드는 화산 폭발은 지형도를 몇 번이고 다시 그려냈다. 기나긴 세월 동안 마그마가 솟아올라 만들어진 용암 호수는 굳어 지각의 탄탄한 기반이 되었고, 화합물로 가득한 지하수와 열, 압력은 지각에 광맥을 남겼다.

지난 3월 초, 나는 이 광맥의 한 조각을 눈으로 볼 기회를 얻었다. 희끗희끗한 석영과 장식에는 유취석 알갱이가 희미한 녹빛으로 반짝였다. 수천 년 동안 이 작은 돌맹이는 북아메리카 대륙 슈퍼리어 호수 북쪽 50 킬로미터 떨어진 “캐나다 순상지”라는 이름의 땅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다. 시장 경제의 레이더에 걸리기 전까지는 말이다. 국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대지를 파내려가 이 돌을 캐내고,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까지 옮겨 왔다. 바로 이곳에서 아르헨티나와 미국 네바다 주에서 리튬 채굴 작업을 돕고 있는 친절한 지질학자 라민 가데르파나 씨가 나에게 이 돌을 보여 주었다. 이 작은 초록빛 알갱이는 고순도 리튬으로 정제해낼 수 있다고 하는데, 너도나도 리튬을 구하려고 달려드는 요즘 세상에서 이 작은 돌맹이야말로 “투자할 만한 상품”이란다. 서너 해 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리튬 수요가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았다. “이곳”이라 하면 내가 있었던 곳, 캐나다 탐광개발업자 협회(PDAC)에서 주관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채광업계 컨퍼런스, 즉 가슴 뛰는 거래와 규제 없는 투자로 시끌벅적한 나흘간의 난리통 이야기이다.

가데르파나 씨와 나는 동굴 같은 전시회장을 가득 메운 1,500개의 부스 중 한 곳에서 만났다. 다른 부스도 올해는 130개국에서 온 24,000명의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토론토 시내의 멋들어진 고층 빌딩 아래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때로는 지역 주민보다 채광업체 직원들이 더 많아 보이기도 했다. PDAC는 전세계 금속 채굴 업계를 구성하는 사람, 회사, 정부 기관 등이 모두 모여 어두웠던 지난날을 돌아보고 밝았던 나날을 추억하는 자리이다. 그래서인지 회장 어디를 보아도 시장 가치 도합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채광업계의 큰손들 이름이 빼곡했다. 뉴몬트 사의 거대한 배너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걸려 있었고, 프리포트 사는 카페와 라운지를, BHP 사는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초고속 무선인터넷을 제공했다.

거대 투자회사에서 온 사람도, 개인 투자자도 만날 수 있었다. 모두 저마다에게 딱 맞는 주식이 있을까 눈에 불을 켜고 물색했다. 장래가 유망한 채광업자는 있을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광맥 틈새시장을 잡아볼까. 그렇게 투자자들은 각 회사 직원이나 지질학자, 탐광업자, 관련 부처 공무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다. 공식 참가자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길으로 드러나지 않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고자 이곳을 찾았다.

호텔 바에서, 파티에서 나누는 이 “흑막의 대화”는 컨퍼런스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다. 특히나 파티는 더 더욱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자리는 투자회사나 개인 투자자의 후원을 받아 매일 밤 성행한다. 나도 왈러스라는 주점에서 하룻밤을 보내 보았는데, 채광회사 직원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대신 본 사람은 교통 기술 판매원이나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투자 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몇 명과 호주에서 온 안보 분석가였다. 모두 계약을 따내고, 수다를 떨며 옛 친구 얼굴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 뿐이었다.

2014년과 2015년에 금, 은, 구리 가격이 바닥을 치며 2010년대 중반에 금속 가격은 급하락세를 겪었고, 곧이어 대규모 구조조정이 잇따랐다. 로이터통신은 미미한 참가율과 텅 빈 행사장으로 고초를 겪은 2015년의 PDAC을 두고 매우 위축되었다고 평했다. 한 금 생산업체 CEO는 당시 상황을 “코스요리를 먹다가 분식으로 연명하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5년 안에 금속재 가격은 다시 올랐고, 2020년 코로나19로 흔들렸던 시장가격도 금방 다시 회복했다. 팬데믹 한가운데서 PDAC 행사는 비대면으로 열렸고, 지난해는 대면 행사와 비대면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